

민선 8기 광산구, 소통 리더십 '새바람'

박병규 광산구청장 취임 한 달 민생현장 소통 위해 '동분서주'

취임 한 달을 맞은 민선 8기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현장 중심의 '소통리더십' 실천으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어일으키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행정 조직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외부적으로는 지역 경제와 문화, 관광 등 미래 먹거리 확보에 나서는 등 전방위적 혁신에 나서면서 민선 8기에 대한 시민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27일 광산구에 따르면 취임 한 달을 맞은 박병규 구청장은 민생현장 소통 강화, 발 빠른 미래 비전 구체화를 중심으로 '투트랙'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고물가, 고유가 등 악화된 민생 회복이라는 당면 과제가 주어진 상황인 만큼 기존보다 더 촘촘하고 체계적인 구정 전략을 강구하고 있다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광산구는 우선 '상생과 혁신으로 광산을 새롭게 시민을 이롭게'라는 구정 목표 아래 ▲상생으로 튼실한 경제 ▲문화관광 꽃피는 도시 ▲참여하며 나누는 복지 ▲소통으로 친근한 행정 등 4대 방침과 10대 핵심 전략, 20대 핵심과제를 설정했다.

광주형 일자리를 광산구의 모델로 확산하는 지속가능성장 경제특구 등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 도시공간 혁신과 자연·사람이 공존하는 정주여건 조성, 사각지대 없는 상생복지공동체 실현, 시민을 이롭게 하는 혁신행정 등이 담겼다. 광산구는 행정조직 정비와 공약 세부 실천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사업 실행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박병규 구청장의 소통 리더십은 이같은 구정 추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최근 국회를 찾아 이용빈 국회의원과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진의 최대 동력이 되고 있다. 공직자, 시민과의 소통으로 임기를 시작한 박병규 청장은 '찾아가는 행정 구청장실'을 취임 1호로 결재하는 등 매주 2회 이상씩 다양한 민생현장을 누비며 시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행정과 시민의 거리를 좁히고, 시민의 목소리가 구정의 '출발점'이 되는 토대를 다지겠다는 의지다.

그동안 평동역에서 퇴근길 시민, 노동자를 만난 것을 시작으로 비아5일장 게릴라 소통, 신장동 아파트 주민과의 대화 등이 진행됐다. 이를 통해 불법 주차차 문제, 마을버스 활성화, 골목상권 경쟁력 제고 방안 등 '구정에서 기다리고만 있었다면' 듣지 못했을 생생한 이야기, 제안, 건의 사항 등을 모두 수렴하고, 대책 마련을 강구하고 있다.

박 청장은 접수된 의견에 반드시 답을 하는 '책임, 제값 구정'을 약속하며 구정에 대한 시민 신뢰

도를 높이고 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력에도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 구청장은 최근 국회에서 민형배, 이용빈 지역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민선 8기 주요 정책과 현안 등 6건을 공유하고, 내년도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여기엔 광주의 관문인 광주송정역을 지역 최고의 문화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광주송정역 핫플레이스 프로젝트'도 포함됐다. 박 청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광주송정역 광장 조성 및 송정역 1시간 걷거리 조성, 송정역세권센터 구축 등 다양한 개별사업을 체계적으로 엮어낸다는 전략이다.

박 구청장은 "광산의 새로운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며 "광산의 발전이 광주의 발전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상생과 혁신을 통해 지역 발전과 도약의 새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골목상권 지킨 광산구, 지역일자리 우수상

7000만 원 사업비 확보

광주 광산구는 "고용노동부 주관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부문에서 우수상(고용노동부 장관상)과 함께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골목상권 활성화, 중소기업 성장지원 등 5개의 전략을 세우고 맞춤형 일자리대책을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광산구는 특히 전국 최초로 참여소득을 도입한 사회참여형 혁신일자리 '광산시민수당'을 통해 18개 사업에서 309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다.

또 코로나19 여파속에서도 건강약자 안전한 병원동행 '휴블린스'로 의료, 돌봄 분야 경력 단절 인력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건강up 골목경제up '만세챌린지'로 6000명이 넘는 시민의

견기 운동 참여와 골목상권 매출 상승을 견인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극복 경제백신 '1% 희망대출', 지역사회 건강력 향상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 광산구 특화정책 등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민선 8기 구정방침인 상생으로 튼실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라고 생각한다"며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큰 힘을 쏟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일자리창출에 대한 지역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치단체가 공시한 일자리 목표대비 추진성과와 자치단체의 의지, 지역 적합성 등의 종합적 평가로 수상이 결정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야호센터, 'Youth Voice' 프로젝트 2기 상영회

청소년이 제작한 영화 '시험기간' 첫 선

광주 광산구 월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는 지난 23일 청소년이 직접 제작한 영화 '시험기간'의 첫 상영회를 가졌다.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Youth Voice' 프로젝트의 두 번째 결실이 첫선을 보인 것.

초·중등 및 학교 밖 청소년 16명이 4개월에 걸쳐 제작한 '시험기간'은 중학교에 입학해 맞이하는 첫 시험을 주제로 한 단편영화다. 시험을 치르며 친한 친구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시험을 잘 볼 수 있을지 걱정하는 등 청소년이 시험기간 동안 겪을만한 에피소드를 담았다.

청소년들은 영화 이론을 시작으로 시나리오 및

스토리보드 제작, 촬영, 장비교육을 받고 감독과 연기자로 역할을 나눠 실제 영화를 촬영하고 마지막 편집까지 직접 담당했다. 이날 상영회에서는 청소년들이 모여 함께 영화를 관람하고, 소감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청소년들의 열정과 담으로 탄생한 이번 작품은 향후 청소년영화제 등에도 출품할 예정이다. 'Youth Voice' 프로젝트는 미디어에 친숙한 Z세대 청소년들이 표현하고 싶은 메시지를 영화로 제작해보자는 취지로 2021년에 시작됐다. 1기에서 제작한 단편영화 '어느 유튜브의 고백'은 광주 시청자미디어재단 '2021년 중등영화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

9대 광산구의의회, 현장중심 의정활동...시민생활 밀접한 곳 집중점검

제9대 광산구의의회가 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곧바로 현장 중심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나서 지역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7일 광산구의의회에 따르면 지난 6일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상임위원별 관내 주요 기관의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광산구의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1일 정재봉 위원장을 비롯한 김영선 부위원장과 국강현·윤혜영·조영임·이우형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 주요 기관 4곳의 현장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방문한 곳은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자원봉사센터, 치매안심센터, 광산구시설관리공단 등으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기관이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발로 뛰면서 현장과 소통한다'는 가치를 내걸고 현장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업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광산구의의회 시민안전위원회도 지난 22일 서봉파크골프장 및 장록교, 침수취약지역 4곳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현장 중심 의정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시민안전위원회는 운영일 위원



광산구의의회 시민안전위원들이 지난 22일 광산구 도산동과 평동을 잇는 '장록교' 옆 산책로에서 '장록교 재가설 설계변경'에 대한 현황 등을 듣고 있다.

장, 박현석 부위원장을 비롯한 김명수, 김은정, 강한솔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광산구의 안전도시국과 시민생활국의 업무를 관할하고 있다.

이번 시민안전위원회의 현장 방문은 단연 '장록교 재가설 사업'의 추진 현황이 화두였으며, 관련 사업의 타당성과 문제점을 현장의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운영일 시민안전위원장은 "각 현장의 문제점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시민들이 안전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듣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구민감사관 공모...8월 4일까지 접수

광주 광산구는 "제4기 광산구 구민감사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광산구 구민감사관은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 확대와 열린 감사 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다.

제4기 구민감사관은 총 20명 이내로 구성할 예정이다. 광산구에 주민등록돼 있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광산구에 위치하고 있는 시민 중 법률, 회계, 세무, 문화, 환경, 건설, 건축,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 행정·구정 발전을 위해 지역단체 등에서 적극 활동 중인 시민이 대상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8월 4일까지다.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준비해(광산구 누리집 공고 참조) 광산구 감사관실 방문 또는 등기우편(광주시 광산

구 광산로29번길 15 광산구청 2층 감사관실), 전자메일(mcmc@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민선 8기를 맞아 구민감사관을 새롭게 정비해 운영을 더욱 확대하고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각 분야 전문가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구민감사관 신청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 감사관(062-960-8064)에 문의하면 된다.

광산구 구민감사관은 2016년부터 건설·건축, 환경·보건, 복지, 행정, 문화·공동체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 종료된 '2022년 동(洞)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참여를 비롯한 자체 감사 참여, 주민 불편사항 제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최승렬 기자 srchoi@

돈돈한

실손의료보험!

지키자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